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제 3 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

5월 5일(월)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사진은 1993년 5월 5일에 개최된 제 1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 광경

전교인 체육대회인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가 어린이날인 5월 5일(월)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서울교회 전 가족이 탁아부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사랑과 화합을 다지게 된다. 또한 다락방 식구들과 평소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며, 주말에는 잘 못만나던 다른 부서의 성도들과도 친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오전 10시 선수단이 입장하면서 시작하는 이날의 행사는 개회식 후 바로 각종 경기에 임하게 된다. 모든 경기는 청팀(1, 2, 5, 6, 9, 10 교구)과 백팀(3, 4, 7, 8, 11, 12교구)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모델처럼 걷기', '무지개 따오기', '아마겔돈 전쟁', '다중축구시합'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돼 있다. 점심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다락방 식구들과 모여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게 된다. 또한 가정의 달에 가지는 행사이니 만큼 어린이를 위한 행사, 경로잔치 등도 있을 예정이며 주변청소와 정리정돈을 한 후 폐회예배를 끝으로 오후 5시에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된다.

이번 축제의 표어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자"이며, 주제 성구는 시편 11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제 찬송은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이다.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는 제 1회가 1993년에 중앙대학교 운동장에서, 제 2회가 1994년 잠실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우리 팀 · 우리 교구

팀명	청팀	백팀
해 당 교 구	1, 2, 5, 6, 9, 10 교구	3, 4, 7, 8, 11, 12 교구
단 장	오정수 장로	최종시 장로
감 독	전인화 권사	백영희 권사
응 원 단 장	이관규 집사	박두호 집사

대회조직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 준비위원회에서는 진행을 위한 조직을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했다.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진행위원장 김광신 장로

· 지도 이순환 목사

부서	부장	지도	차장	실행위원
기획 · 진행	박철훈 민순구	김명현 이순환	서문석 임상현	김세재 이대원 김재중 최형열 강종찬 최재준 정현숙 황재목 이상호 송인권 조대영 김진환
심 판	김상철	박귀환	홍성주	이상호 백수남 고영철 안의경 유 신 이정수 김차순 권귀옥
홍 보	이영기		김일용	류종관 김광욱 정동호 이현규
기 록	정병무	이영희	박정선	서준식 신순우 고석창 이계홍 박정인 신동기 이영희
시 상	성준경	이상진	임훈규	김상옥 허 숙 김희영 이영옥 박정순
재 정	오정수		왕경래	임옥균 오유식 박춘구 손태기 안찬휘
동 원	이용선 윤봉준 나희주	임진태	하영수 허희철 황정옥 이재원	최일춘 장낙희 박영옥 주경자 이구연 현병애 황태진 박윤희 한명순 박민호 장선옥 지역장 및 부지역장, 교구 간사
시 설 관 리	최종시	이성득	조정식	윤성남 조정식 박두호 박동식 허찬우
봉 사	홍정호	최양순	윤찬오	구명덕 오규자 제오복 최승옥 위성남 김연옥 황정남 방태숙 최영환 김경희 이영주 이영희
의 료	이남호	김성숙	안인호	이승철 한인선 김정임 정옥희 이운진
차 량 안 내	김태기		박동춘	한길동 김동연 김용호 이승우 김영구 이인근 서창원 박동식 탁경준 조원식 권오준 임선철 정무균
전 령	김영준		노송성	허상한 우정하 김영식 김순희 김미경 배은희 한성옥

오늘 III부 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축제 진행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는 진행위원장(김광신 장로)가 행사의 전반에 관해 설명한 후 부서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준비사항들을 논의하게 된다. 경기 중에는 교회학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어서 오늘 회의에는 각 교회학교 부장과 부감의 참석도 요망된다.

창세기 강해

49장 8~12절

오다는 야곱의 아들 중 넷째 아들로 아버지 지가 위의 세 형들에게 하는 혹독한 말을 들으며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구원 받은 백성이라면 그는 마땅히 자기가 범한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창녀를 가장한 머느리 다말과 간통을 한 사람이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도록 제안한 사람입니다(창 37:27 - 27).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결국 자기에게도 저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은 심판이나 형벌 대신 유다를 칭찬하고 그가 변영할 것이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1. 찬양을 받은 유다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가 유다를 낳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창 29:35)라고 했는데 야곱은 유다에게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씌어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계 4:11).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이 있다면 우리도 24 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발 앞에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홀을 권 유다

야곱은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장자는 가족의 지도자, 즉 족장이 되고 다른 형제보다 두 배로 많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 기도 가운데 부와 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의 요셉에게 주어졌으나 모든 권세는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자기 부모와 형들은 결국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유다의 홀에게 절하게 됩니다. 유다는 메시아, 즉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흠족한 왕은 다윗으로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며, 이새는 오벧의 아들이고, 오벧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후손 중 다윗보다 더 큰 칭송을 받은 사

람은 없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왕은 그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던 지 그를 두고 "바다의 모래 알처럼 셀 수 없는 지혜를 가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왕상4:29 - 31). 솔로몬의 통치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유다”



이종운 목사

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해에 퍼져나갔으며 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등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요시아왕은 국가적 회개와 갱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성전을 성결케 하고 우상제단을 허물고 유월절을 지키며 악령을 몰아내는 소위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엘리야김, 아줄, 사독, 아담, 엘리우드, 엘르아살, 맛단, 야곱,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3. 재물의 변영

야곱은 유다에게 세번째로 재물의 변영을 축복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재물의 변영을 주셨습니다. 11 ~ 12절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물질적 변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 왕 중 왕

변영은 예수 그리스도 즉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의 것입니다. 야곱은 10절에서 이를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의 대상이 되지만 예수님 만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빌2:9). 예수 그리스도도는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셨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왕 중 왕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통해 오는 변영을 말했습니다. 물질적 변영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약1:17).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변영도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미움에서 사랑을, 슬픔에서 기쁨을, 소외에서 화평을 가져다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다 얻어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 순례자 컬럼 ※

“거짓된 가면은 벗어야”

배우들의 분장술은 대단한 것 같다. 젊은이가 노역을 맡게 될 경우 외모만이 아니라 행동도 말도 노인처럼 해야 한다. 악역을 맡게 되면 갖은 추태와 원치 않는 말도 토해내야 훌륭한 배우로서 찬사를 받게 된다.

정치하는 이들이나 사업하는 이들이 국제 무대나 국민 앞에서 두꺼운 가면을 쓴 채 연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소로움을 지나 측은한 감정까지 갖게 된다. 국익을 위해서 또는 사업상이라는 대의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겠으나 가면 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잊어서는 아닐 것이다.

술집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이 그 일이 좋아서 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환경과 조건을 탓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은 가면을 벗고 제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내가 쓰고 있는 거짓의 가면도 벗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식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49:8, 10)

• 초대이 글 •

제 3 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이들의 소원이요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가정은 모든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동시에 삶의 바탕이 됩니다.

하루 일과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서 종결됩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을 찾는다면

그곳은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 ‘작은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의 모습처럼

항상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활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을 ‘작은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서울교회 가족들이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뛰고, 차고, 잡아당기고, 달리면서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목사 이 중운

▶간증 - 찬양대수련회를 마치고

“40년보다 알찼던 4시간”

유귀선(할렐루야찬양대원)

항상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할렐루야찬양대는 지난 식목일, 모처럼의 휴일을 ‘기도의 나무’를 심기 위해 기도원으로 향했다. 기도회를 통해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의 꽃을 피워 드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심기 위함이었다.

도착은 4일 밤이었다. 시작부터 우리는 예배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찬양대의 사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특강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으로 가진 철야기도회에서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의 홍수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자면 모태신앙이라는 큰 복을 누리면서도 이제까지 철야기도회나 수련회 등에 참석한 경험이 없었다. 뜨거운 회개의 기도나 통성기도를 해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그날의 기도회에 솔직히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드리는 대원들의 기도는 그 모든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떨쳐 버리기에 충분했으며 몇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

께 힘을 다해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할렐루야찬양대의 눈물과 땀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주님께 합당한 할렐루야찬양대가 되기를 기원하는 간구, 우리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그밖에도 세세하게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처음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대원들의 열심있는 기도와 내가 한 덩어리 되어 은혜롭게 기도회를 마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달리 약간 쑥스러움도 느꼈으나 주 안에서 회례에 찬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석한 대원들 중에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하고.

내게는 40년 간의 기도보다 절적으로나 양적으로 훨씬 풍요했던 시간이었다. 그날에 심은 내 기도의 나무가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스도와와의 평화,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가 주령 주령 열리기를 다시금 간구한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안녕하세요, 대학부입니다.”

최지원(대학부)

“안녕하세요, 대학부입니다.”

교회당에 들어서실 땐 낭랑한 저희 회원들의 인사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난 주일(4월 6일)부터 저희 대학부에서는 ‘인사하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튀는(?) 행동을 하나요? 용돈이 궁해서? 사랑에 굶주려서? 간식이 좀 필요해서? ...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아주 순수한 동기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명랑한 인사소리로 우리 교회 안에 훈훈한 기쁨을 불어넣고 싶은 소박한

바램이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랑을 오늘에 꿈꾸는 대학부 회원들의 아주 작은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내적인 교회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픈 우리의 기도입니다.

때로 얼굴은 낯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라는 사실 하나로 마주칠 때마다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바람이 저희 작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부는 모습을 그

려봅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부 회원들의 기도제목입니다.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110:3).

1.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2.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3.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4. 대학부에서 주님께 헌신된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13:35).

우리의 인사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참가국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순례

베트남 (Vietnam)

■ 면적 330,000km² (남한의 약 3배)

■ 인구 75,030,000명(95년 현재)

■ 공용어 베트남어

■ 수도 하노이

■ 경제 44년이 넘는 전쟁 기간은 경제를 사정없이 파괴했다. 베트남군의 캄보디아에 대한 간섭, 베트남의 지원국이며 무역 상대국인 구 소련의 경제적 몰락, 압제적인 마르크스주의 관료체제에 의한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적 통제 등으로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 종교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별 의미가 없으며 모든 종교적인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실제적인 정책이다. 기독교에 대한 압력은 계속해서 잔혹해지고 있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하다. 1991년 이후 교회에 대한 박해는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불교 52%, 신흥종교 5.2%, 정령숭배 3%, 회교 0.2%, 기독교 9.8%, 무종교·기타 29.8%

■ 베트남은 지금

- ① 공산주의를 공언한 나라: 베트남은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공언한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75년 전쟁이 종결되면서 북베트남인들이 남베트남을 점령하고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속박에서 풀려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 ② 성장하고 있는 교회: 80년대 후반부터 교세가 부흥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이 잘 보전되며 성장하도록 기도하자. 보고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85년에서 1992년 사이에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의 수가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 ③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 마르크스 정권은 급속히 증가하는 기독교인의 수와 확산되고 있는 교회운동 속에서 공산주의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다. 1990년 이래 기독교인의 억압, 고문, 투옥 등이 증가하고 있다.
- ④ 긴급한 지도자 훈련: 복음주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며 교회들은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여 잘못 가르칠 우려가 있다. 베트남의 신학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것과 훈련된 목회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자.

고 3을 위한 기도회

‘고 3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전 11시 고등부실에서 열린다.

오늘 기도회에서는 고 3학생과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학업에 정진할 것과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한 학생이 7~8명의 후원자와 결연하게 되는데 후원자는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 신앙의 선배와 고등부 후배들이다.

후원자들은 올 연말까지 고 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4월 학습·세례식

4월 학습·세례식이 23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21일(월), 문답은 22일(화) 오후 7시에 각각 실시된다.

단 17일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를 위해 학습자인 경우 13일(주일), 세례자인 경우 20일(주일) 새가족부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학습·세례자는 반드시 위의 교육에 참가해야만 문답 및 4월 학습·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

옥탑층에서의 사랑의 나눔

3월 넷째주부터 오늘까지 봉사자를 위한 주일 점심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3월 23일: 이영기 장로·이영숙 집사 가정
- ▶ 3월 30일: 이승우 집사·이인근 집사·서창원 집사, 홍정호 장로
- ▶ 4월 6일: 송영강 권사, 이남호 장로
- ▶ 4월 13일: 김은애 권사

이 밖에도 식당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개조해 주신 오유식 집사, 그리고 매 주일 말없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교우 동정 ■

- * 한준호·황자옥 성도(1교구 논현 4다락방)는 9일(목) 득남하였다.
- * 박순자 집사(12교구 성남다락방)는 성남에 ‘이원재 선물코너’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이규태·김은규 집사(11교구, 오금다락방)는 7일(월) 방이동에 ‘현대골프아카데미’를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한현숙 집사(3교구 일원다락방, 임마누엘찬양대 오르가니스트)는 16일(수) 오후 7시 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음악회에서 연주한다.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10시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 8차 김치세미나에 참가할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지도자를 위해
2.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한교회·한가족·한마음 축제”를 은혜 중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